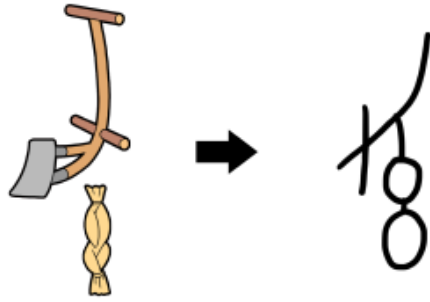


3(2)  
-  
321

회의문자①



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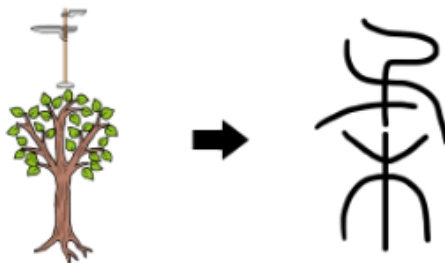
어릴 유

幼자는 '어리다'나 '미숙하다', '작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幼자는 幺(작을 요)자와 力(힘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力자는 밭을 가는 농기구를 그린 것으로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힘을 뜻하는 力자에 '작다'라는 뜻을 가진 幺자가 결합한 幼자는 '힘이 작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힘이 적거나 작다는 것은 '어린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幼자는 밭을 갈 정도의 힘도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어린이'나 '작다', '미숙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322

회의문자①



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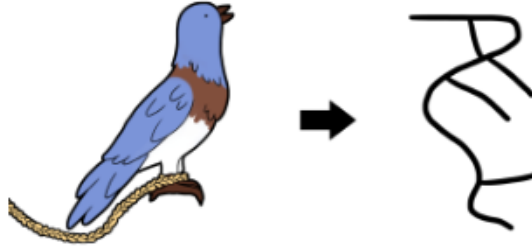
부드러움  
유

柔자는 '부드럽다'나 '연약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柔자는 木(나무 목)자와 矛(창 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矛자는 고대에 사용하던 창의 일종을 그린 것이다. 柔자는 본래 나무에서 올라오는 새순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래서 柔자에 쓰인 矛자는 '창'이 아닌 나무 위로 올라오는 새순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아무리 딱딱한 나무일지라도 봄이 되어 올라오는 새순은 부드럽고 연약하다. 그래서 柔자는 '부드럽다'나 '순하다', '여리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소전	해서

3(2)  
-  
323

회의문자①



維

벼리 유

維자는 '밧줄'이나 '매다',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維자는 系(가는 실 사)자와 隹(새 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隹자는 작은 새를 그린 것이다. 維자의 갑골문을 보면 새의 다리에 획이 하나 ㇿ 그어져 있었다. 이것은 새를 끈으로 묶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금문에서는 획이 아닌 糸자가 ㇿ 쓰이게 되었지만, 의미는 같다. 維자는 이러한 모습에서 '밧줄'이나 '매다'를 뜻하게 되었지만, 새를 묶어두면 날아가는 데에 제한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유지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324

회의문자①



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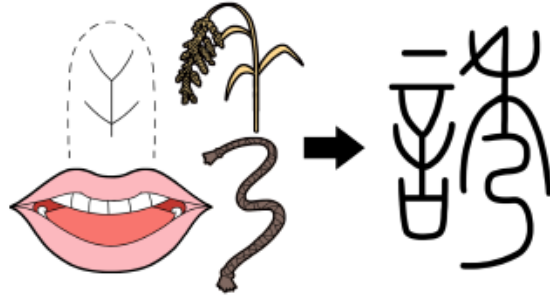
넉넉할  
유:

裕자는 '넉넉하다'나 '너그럽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裕자는 衣(옷 의)자와 谷(골 곡)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谷자는 계곡을 그린 것으로 '골'이나 '골짜기'라는 뜻이 있다. 裕자는 이렇게 큰 '골짜기'를 그린 谷자를 응용해 여유로움을 표현한 글자로 몸에 비해 옷이 '헐렁하다'라는 뜻을 표현했었다. 그러나 지금의 裕자는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 또는 재산이 너그럽거나 여유를 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금문	소전	해서

3(2)  
-  
325

회의문자①



誘

꺄 유

誘자는 '꺄다'나 '유혹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誘자는 言(말씀 언)자와 秀(빼어날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秀자는 벼가 높이 자라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빼어나다'나 '우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빼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秀자에 言자를 결합한 誘자는 '빼어난 말'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사기꾼들은 남을 속이거나 꺄어내기 위해 그럴듯한 말로 유혹한다. 誘자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글자로 빼어난 말씀씨로 꺄어낸다 하여 '꺄다'나 '유혹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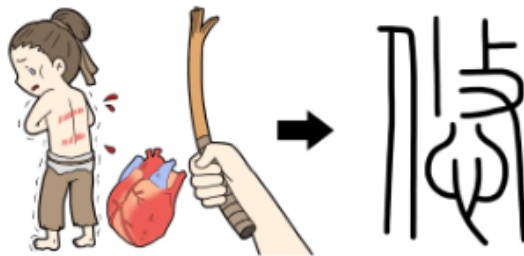
소전

誘

해서

3(2)  
-  
326

회의문자①



悠

꺄 유

悠자는 '멀다'나 '아득하다', '근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悠자는 攸(바 유)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攸자는 사람을 몽둥이질하는 攸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 몽둥이질하는 것일까? 매를 맞는 사람은 노예다. 그러니 여기에 心자가 더해진 悠자는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悠자는 '우울해하다'나 '그리워하다' 또는 '멀다'나 '아득하다'와 같은 뜻을 갖게 되었다.

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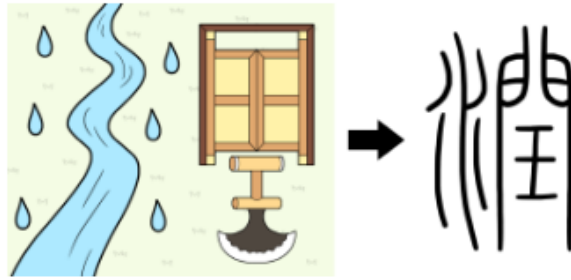
소전

悠

해서

3(2)  
-  
327

형성문자①



潤

불을 윤:

潤자는 '윤택하다'나 '젖다', '(은혜를)받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潤자는 水(물 수)자와 潤(윤달 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潤자는 '윤달'이나 '잉여'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潤자는 물이 사물의 표면에 젖어 윤기가 나는 모습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水자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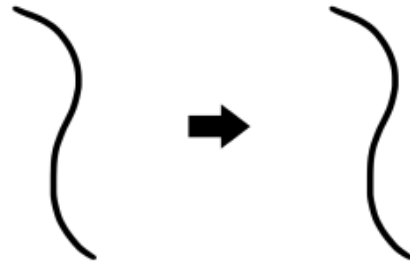
소전

潤

해서

3(2)  
-  
328

상형문자①



乙

새 을

乙자는 '새'나 '굽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乙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새'이지만 구부러진 모습이 마치 새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일 뿐 이것이 무엇을 본떠 그린 것인지는 모른다. 乙자가 부수로 쓰인 글자들도 '새'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乙자는 단순히 사물이 구부러진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는다. 다만 단독으로 쓰일 때는 십간(十干)의 둘째 천간(天干)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乙

갑골문

乙

금문

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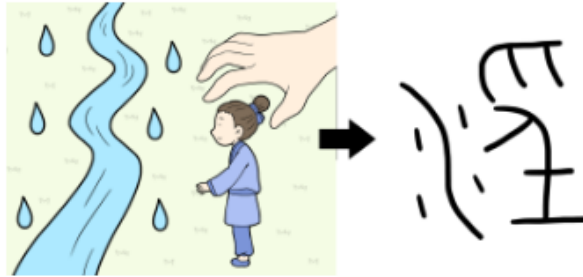
소전

乙

해서

3(2)  
-  
329

회의문자①



淫

음란할  
음

淫자는 '음란하다'나 '탐하다', '사악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淫자는 水(물 수)자와 淫(가  
까이할 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淫자는 허리를 숙인 사람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가까이하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가까이하다'라는 뜻을 가진 淫자에 水자가 더해진 淫자는  
'물을 가까이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淫자는 후에 '물'을 '욕정'에 비유하게 되면서  
'탐하다', '음란하다'와 같이 욕정을 가까이한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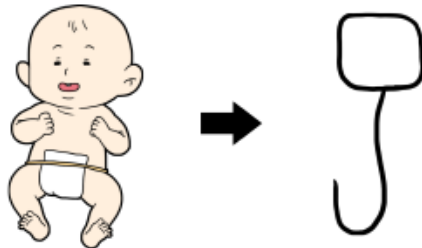
소전

淫

해서

3(2)  
-  
330

상형문자①



已

이미 이:

已자는 '이미'나 '벌써'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已자는 己(자기 기)자와 매우 비슷하게 그려져  
있다. 다만 已자는 己자보다 뺨침이 조금 올라와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已자는 본래 다 자  
란 태아를 그린 것이었다. 已자에 '이미'나 '벌써'라는 뜻이 있는 것도 배 속의 아이가 다 자라  
이미 출산이 임박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의 已자는 '이미'나 '벌써'라는 뜻 외에도 '매우'나  
'반드시', '이것'과 같은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已

갑골문

已

금문

已

소전

已

해서